

SK

정기 주주총회 성공적 개최



SK주식회사가 지난 3월 11일 서울 광장동 웨라톤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43차 정기 주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주총에서 SK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출한 ▲2004년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 모두가 국내외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다. 특히 이사 선임과 관련해 올해로 임기(3년)가 만료되는 최태원 회장이 이사로 재선 임되고, 김준호 윤리경영실장(부사장)이 신입이사(사내이사)로 선임됨으로써 현 경영진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황규호 SK주식회사 이사회 사무국장 겸 CR전략실장(전무)은 이날 주총 결과에 대해 “작년과는 달리 외국인 주주비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대다수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최태원, 김준호 이사의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이는 지금까지 최 회장을 중심으로 SK주식회사가 추진해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성과를 국내외 주주들이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는 신뢰의 결과”라며 “SK주식회사는 앞으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K주식회사는 향후에도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에 대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SK

창사이래 최대실적으로 신용등급 상향

SK주식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 달성,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계열사 부담 완화를 바탕으로 회사

채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SK글로벌 사태 발생 직전 등급보다도 한 등급 높은 AA0로 올라갔다.

SK주식회사는 2003년 2월 SK 글로벌 사태, 경영권 위협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되는

수난을 겪었으며 직전년 1,300억을 기록했던 당기순이익이 2003년에는 150억으로 급감하고 회사채 발행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뛰는 등 약 1년간 호된 대가를 치루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새로운 지배구조 도입을 통한 정기주총에서의 경영권 방어 성과와 SK네트웍스의 자구방안 초과 달성 및 경영정상화 등 그룹 전반의 리스크 요인이 점차 해소 되면서 상반기 당기순이익 7,018억원을 기록해 작년 7월 신용평가에서 SK글로벌 사태 이전 신용등급을 회복한 바 있으며, 무디스와 S&P도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SK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시켰었다.

이로서 SK주식회사는 SK글로벌, 소버린 사태 등으로 겪어온 고난의 시기를 마무리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뛰어 넘어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

독자개발 '자일렌 전환 촉매', 세계시장 점유율 50% 돌파



SK주식회사가 독자 개발한 '자일렌 전환 촉매'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SK주식회사는 3월 17일 전략적 제휴 파트너를 통해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자일렌 생산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산업(Reliance Industries Ltd.)과 자체 개발한 자일렌 전환 촉매(제품명 : ATA-11) 및 관련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금번 계약은 2003년, 2004년에 이은 릴라이언스와의 세번째 계약이다.

이를 통해 SK주식회사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한 '자일렌 전환 촉매 (트랜스알킬레이션 촉매, Transalkylation Catalyst)'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2002년~2005년3월, 촉매 교체 시장 기준)를 돌파하면서 관련 기술력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SK

지배구조 개선 국내외서 호평 받아

SK주식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국내 유수 기업들의 지배구조개선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아 온 것에 이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 받으면서 유럽의 금융전문지 유로머니의 자매지인 아시아머니가 실시한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소수주주권 인식 제고와 IR 향상을 위해 가장 노력한' 기업 중 한국과 아시아 1위로 선정됐다.

그 외에도 SK주식회사는 국내 기업 중 '경영진의 투명성 확보와 명확한 책

임을 묻는 구조를 갖춘 기업 1위,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정보를 공시한 기업' 2위로 꼽히는 등 전체 14개 문항 중 7개 문항에서 1~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국내 25개 기업 등 아시아 10개국 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기관투자자/애널리스트 등 50여명이 평가한 만큼, SK주식회사의 지배구조 개선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계기가 됐다.

SK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새학기 교복 전달



SK주식회사가 새학기를 맞아 전국 소년소녀가장 650명에게 교복을 선물했다.

SK주식회사는 발송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해 총 2억원을 들여 전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SK네트웍스 의류 상품권 20만원 + SK상품권 1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월 22일 밝혔다.

이번 교복선물은 2003년 7월부터 고객들이 SK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할 때마다 SK주식회사가 10원씩 적립하

여 만들어진 '소년소녀가장돕기 기금' 중 2004년 적립금(10억원)에서 제공되었다.

SK주식회사는 '고객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SK주유소'라는 모토 아래 2003년 7월부터 '소년소녀가장돕기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2003년에는 7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으며, 2004년에는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SK

전국 SK주유소에서 설 맞이 이벤트 펼쳐

SK주식회사는 설연휴기간 동안 귀성객들이 여유로운 귀향길이 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주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지퍼팩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펼쳤다.

총 12만개의 지퍼팩은 2월 8일 하행선 고속도로와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0일 상행선 고속도로에서 고객들에게 전달됐다.

한편 SK주식회사 주유소 내 스피드메이트에서는 지난 1일부터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고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차량 점검을 시행했다.

브레이크와 각종 오일 점검 등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고객들은 안전한 귀향길이 되고, 귀성 후에도 17일까지 점검을 받을 수 있어 귀성 후 후유증까지 완벽히 해결했다고 입을 모았다.

GS칼텍스

GS칼텍스로 사명변경



LG칼텍스정유는 지난 3월 31일부터 GS칼텍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CI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CI는 오렌지(Orange), 그린(Green), 블루(Blue)의 3색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오렌지는 정유의 에너지가 상징하는 역동성을, 그린은 유통/서비스 등의 생활편의 사업군의 성장과 배려를, 블루는 투명경영을 통해 최고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앞으로도 도전적 목표와 실행력으로 '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라는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ChevronTexaco사와 주주계약 체결



허동수 회장은 지난 2월 11일 ChevronTexaco사와 홍콩에서 새로운 주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주

주계약을 통해 GS홀딩스측 5명과 ChevronTexaco사측 4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경영조정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주요 경영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라는 회사의 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중동 산유국 및 중국 순방



허동수 회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중동산유국과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순방에서 허동수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국 영석유회사(ADNOC)의 총재(Yousef Omair Bin Yousef)와 오만의 국가경제성 장관(Ahmed Abdul Nabi Macki), 오만의 상공부 장관(Maqbool Ali Sultan), 오만의 석유장관(Mohammed Al Rumhy) 등과 만나 원유수급 및 석유사업과 관련된 협력관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교토의정서 발효기념 심포지엄 참석



허동수 회장은 지난 2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재단 136포럼'

이 주최한 '교토의정서 발효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광결호 환경부 장관등과 함께 토론패널로 참석해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은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증진,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말하고, 획기적인 기술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GS칼텍스

새로운 주유소, 충전소 RI 테스트



GS칼텍스는 새로운 주유소, 충전소의 RI(소매이미지 통합)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초까지 디자인 테스트를 벌였다. GS칼텍스는 이번 테스트를 위해 미국의 세계적 CI 및 RI 전문업체 랜도(Landor)사와 공동작업을 통해 개발한 새로운 주유소, 충전소 디자인들을 경기도 수원시의 영통주유소, 평화주유소 등 7개 주유소에 적용했다.

GS칼텍스는 9월 말까지 전국 3,300여 개의 계열 주유소 및 충전소에 확정된 디자인을 적용해 주유소, 충전소 RI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정유

마니산 시산제 및 공장안전 기원제



인천정유(주)는 지난 3월 13일 260여명의 임직원 및 직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도 마니산에서 공장의 안전운전과 산악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공장 안전기원제를 겸한 시산제를 거행하였다.

이 행사는 매년 실시해오는 행사로 올해는 한송호 사장과 방기석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임직원이 참여하였다.

등반을 마친 후 임직원 및 직원 가족들은 함허동천 시범야영장에서 산악인들의 안전과 인천정유의 무재해, 그리고 회사의 정상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고, 아울러 개별적으로 준비해 온 음식을 정겹게 나누어 먹는 등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GS칼텍스

새로운 휘발유 브랜드 'KIXX'로 새단장



GS칼텍스는 CI로 RI변경에 맞춰 휘발유브랜드 'Kixx(킵스)'로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휘발유 브랜드 'Kixx'는 발음하기 쉽고 메시지 전달이 쉬운 영어단어 'Kick'을 모태로 개발된 것으로, '보다 빠르고, 강

하며, 역동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운 휘발유 브랜드의 도입은 회사의 휘발유가 엔진 청정기능이 뛰어나 엔진내부와 연료분사장차에 낀 퇴적물을 세정해 엔진 출력과 연비를 강화시켜 주는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고객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한 데 따른 결정이다.

또한, GS칼텍스는 휘발유 브랜드 변경에 맞추어 마케팅 사이트를 www.kixx.co.kr로 새롭게 개편하고 레이싱 팀을 후원하는 등 'Kixx'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에쓰-오일

제 30기 정기주총...김선동 회장 재선임



에쓰오일은 지난 3월 28일 여의도 63빌딩 엘리제홀에서 제 3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 임기가 만료된 김선동 대표이사 회장과 노연상 사장을 재선임했다.

사외이사에는 장세원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알 후메이드(AI-Humaid) 전 아람코 부사장을 재선임하고 조장연 외국어대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 이사진은 이사 6명과 사외이사 8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난 해 10조 6천8백87억 원의 매출과 9천 4백1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비롯,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보통주 1주당 4천원 현금배당을 의결했다. 에쓰오일은 전년에 비해 매출액은 35.2%, 당기순이익은 268.1% 증가한 사상 최고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에쓰-오일

납세의 날 '국세 1천억원탑' 표창



에쓰오일은 지난 3월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39회 납세의 날 기념식에서 알 아르나우트 CEO는 이현재 부총리로부터 '국세 1천억원탑'을 받았다. 에쓰오일은 지난 해 1천 70억 원의 법인세(2003 회계년도분)를 납부하고 투명경영과 성실납세를 지속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에쓰-오일

온산 무공해 오리쌀 생산
지원약정 체결

에쓰오일은 지난 3월 31일 울산시 울주군과 '오리농법 무공해 쌀 생산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온산지역 농가 38가구가 5만8천여 평의 논에서 오리농법으로 경작한 쌀 전량(40kg들이 2천 3백포 예상)을 현금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2002년부터 지역농민들의 오리농법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으며, 쌀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정부수매제가 폐지되는 올해에는 오리농법 경작면적을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5만8천5백 평으로 대폭 확대했다.

현대오일뱅크

거부할 수 없는 행운 이벤트 실시



현대오일뱅크는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새 봄맞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자동차와 무료주유포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거부할 수 없는 행운 이벤트'를 실시, 봄 쇼핑에 나서는 고객

들의 춘심(春心)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오일뱅크는 행사 기간 동안 응모권을 접수한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현대자동차 ‘쏘나타’와 ‘투싼’ 각 10대, 무료 주유가 가능한 오일백 포인트 5천 만원 상당 등 총 2만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푸짐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

산자부 주최 윤리경영 우수기업 선정

현대오일뱅크가 산업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 실시한 윤리경영지표(KoBEX) 조사 결과 ‘CEO 부문’과 ‘지역사회 부문’ 등 두 개 부문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윤리경영지표 조사는 산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매년 주요기업의 윤리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써, 산자부 등 부처 산하 46개 공기업과 매출액 기준 상위 220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 경영설명회 4년 연속 개최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이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05년 경영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현대오일뱅크

스마트카드 서비스 업계 최초 실시



현대오일뱅크는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카드, 현대해상과 제휴하여, 국내 정유사로는 최초로 자동차 스마트카드(Motor Smart Card, MSC)를 도입, 3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6개월 동안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10여 개 주유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카드 체험 고객단이 현대자동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를 통해 운행 중 자신의 자동차의 기본 정보를 받을 수 있어 가능한 서비스. 고객이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스마트 카드로 자신의 차량 상태를 입력한 후,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결제를 하면 스마트카드에 내장된 자신의 차량 정보가 곧바로 현대·기아자동차 메인서버(인터넷)로 보내지게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스마트카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고객 체험단 1,200명을 모집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 스마트카드 고객 체험단 모집요건은 2001년 이후 출고된 차종으로 그랜저 XG, 옵티마, 리갈, EF쏘나타 등 4개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3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년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임직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

도 가졌다. 대기업의 CEO가 직접 나서 경영설명회를 갖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서 사장은 투명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정보를 내·외부에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표이사 취임 이후, 4년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설명회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

SK 가스

안전점검 발대식



SK가스는 지난 3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에너지월드 충전소에서 2005년도 수요처 안전점검 발대식을 가졌다.

김세광 대표이사를 비롯해 심재의 기술운용 본부장, 가스안전공사

권총택 경기북부지사장과 안전점검반원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난해 수요처 안전점검 결과를 정리하고 올해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무재해 기록을 이어가자는 결의가 다져졌다. 심재의 기술운용 본부장은 이날 활동보고를 통해 “지난해에는 전국의 충전소 등 수요처 418개소의 안전점검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올해는 안전점검 수요처를 더욱 늘려 449개소의 안전점검에 나서고 웹사이트 운영을 활성화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한편 안전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남동발전

기술경쟁력 강화작업 착수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월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및 부산대학교와 발전소 보일러 최적 연소기술 확보를 위한 「연소기술 교류 산학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작업에 착수했다.

이 협약으로 남동발전은 발전소 보일러 연소문제 해결에 있어 대학으로부터 전문적인 연소 이론 및 신기술을 지원받고, 대학은 발전소 현장 연소경험 및 설비 활용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기후 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는 산학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성산업

열병합발전 등 사업다각화

대성산업은 올해도 내실경영을 기하면서 열병합발전·CES사업·대체에너지개발에 주력하면서 중국 가스보일러 시장 진출 확대와 더불어 제지사업 진출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에 1조원대의 매출에서 올해에는 비약적으로 늘어 나간다는 전략 아래 태양광발전과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해 오산에너지 개발팀직원을 본부로 편성시켜 연구개발팀을 운영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면서 신규사업과 무역업 진출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성그

룹이 에너지사업을 모체로 성장해온 만큼 집단에너지사업과 태양광발전·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면서 가스보일러를 시작으로 중국 진출을 모색해온 제지사업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가스연맹

2005년도 사업 ICT 2005, WOC 10에 집중

한국가스연맹은 2005년 상반기에 있을 ICT 2005와 WOC 1행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맹은 지난 2월 25일 리즈칼튼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등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맹은 세계 IT전문가와의 만남의 장인 세계에너지산업 정보통신기술회의(ICT 2005)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최신 IT기술을 습득하고, 국제가스연맹과의 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ICT2005행사를 치름으로서 향후 세계가스회의(WGC)의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 에너지업계의 위상을 직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송환 ICT2005행사 조직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회의의인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 CEO포럼 등을 통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마인드 함양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석유공사

동해서 양질의 가스층 추가 발견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3월 3일, 국내 대륙붕 제6-1광구에서 가채 매장량이 약400억 입방피트(LNG 환산시 80만톤)에 이르는 양질의 가스층과 석유를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추 위치는 2004년 7월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한 동해-1 가스전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이며, 지하 2757m까지 굴착한 결과 2247~2284m 구간에서 약 37m 두께의 가스층이 발견됐다.

석유공사측은 “가스 산출 시험 결과 가스 산출량이 일일 3800만 입방피트에 달하고 가스 분출압력이 높은 양질의 가스층인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이번 발견된 가스 및 석유는 현 국제가격기준으로 평가할 때 약 2억8000만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음은 물론 동해-1 가스전 설비를 이용해 생산할 수 있어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가 작아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금번 발견한 가스전은 현재 생산 중인 동해-1 가스전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개발할 계획이며,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전소사업

카스피해 석유광구 개발 본격화

한국석유공사를 대표하는 한국 전소사업은 지난 2월 2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국영석유사 KazMunaiGaz社와 카스피해상의 잠블 광구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소사업은 올해 말까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사와 지분양도

계약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카스피해 탐사작업을 본격 개시하게 된다. 한국 전소사업은 석유공사와 삼성물산, LG상사, 대성산업, SK가 참여하고 있다.

잠블 광구는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 자원의외교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 시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영석유사간에 공동 개발의정서를 체결한 지역으로 지난해 공동으로 실시한 기술평가 결과 대형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판명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

자원개발 신규탐사에 집중할 예정

한국가스공사는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리핀 말라파야 생산 가스전 사업, 미얀마 A-3, 캐나다, 베트남 등 탐사광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2004년 11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얀마 A-1 광구 탐사사업은 오는 2008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필리핀 말라파야 가스전 지분참여 사업은 2004년 11월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스공사 외에도 LG상사, 대성산업, 서울도시가스 등이 한국전소사업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A-1광구 가스시험생산 성공

대우인터내셔널은 2004년 1월부터 탐사 시추했던 미얀마의 A-1광구에서 일일 생산량 9600만 입방피트의 가스 시험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생산에 성공한 미얀마 A-1광구의 평가정은 미얀마 북서부 해상에 위치한 석유·가스탐사 광구로 ‘웰’ 유망구조내 기존 탐사정으로부터 서쪽으로 6km 떨어진 지점으로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 3일까지 평가가 진행됐다.